

013

트링그림찾기

문화제

변명



애인권을 고민하는

트링그림찾기

관 427호

searcheye@naver.com

vhasearcheye

10.7~10.11

@학생문화관 로비

-자보상시전시

트링그

OPEN

블린그림찾기의 변명	5
블린그림찾기의	6
10주년 그리고 2013	
알고 쓰자	8
개념어 사전	
장애란 5대 요구안	10
병신의 의도	12

CHAPTER 1

JM과	15
장애인 용내내기	
편의시설 제가	18
참 좋아하는데요	
공익광고 속	22
장애인	
병신의 정의	26

CHAPTER 2

장애와 예술	29
장애에 대한	33
편견은 어떻게	
재생산되는가	
병신과 나	38

림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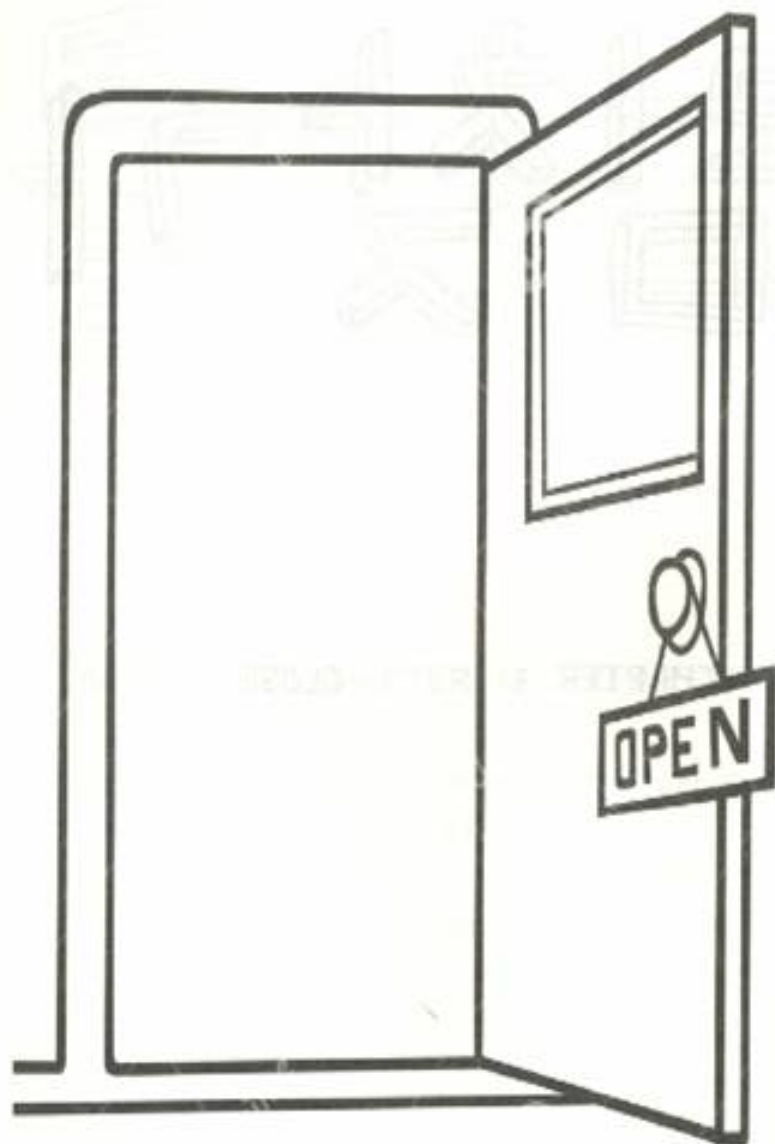
CHAPTER 3

비장애인에 대한	41
폭력	
너의 수화가 들려	43
병신과 육	49
병신 이야기	51
M의 못 다한 이야기	52

CLOSE

죽하 메시지	54
후기	56

2013 틀린그림찾기 문화제: 변명



틀린그림찾기의 변명

틀린그림찾기는 장애인권에 관해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치단위입니다. 항상 옳을 것이라 생각했던 사회의 기준들에 의문을 가지고, 단단하게 붙어있는 고정관념의 조각들을 뼈뺀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틀린 그림'을 찾아 올바르게 고치기 위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틀린그림찾기가 결성(?)된 지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미 절반은 다 지나갔지만요. 단위원들조차 깜빡 넘어갈 뻔 했던 기념일에게 사과라도 하듯이, 2013년 틀린그림찾기 문화제의 주제는 '변명'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틀린그림찾기는 장애인의 권리를 억압하고 배제하는 사회의 잘못된 그림들에 대하여 틀려! 고쳐! 라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실천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들은, 우리의 눈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틀린 그림이었지요. 10주년을 맞은 지금, 우리는 항상 옳을 것이라 생각했던 우리들의 주장들에 의문을 가지고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옳다고 생각한 지점들이 많은 시간이 흘러 틀린 것이 되진 않았는지, 과거의 틀린 그림들이 왜 잘못된 것이었는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왜 우리는 모두가 같이 이 문제를 고민했으면 좋겠는지, 그래서 무엇을 바꾸고자 하는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화제는 틀린그림찾기의 작은 '변명'입니다. 한 번 들어주시겠어요?

틀린그림찾기 10년 발자취

2003.

19대 특수교육과 학생회 집행부로 시작
대동제 - 장애인체험 사관원
CBS 라디오 인터뷰

2005.

자치단위 인준
학교 편의시설 조사 및 지도 제작
문화제 '난지도'

2007.

장애인 학생 지원센터 설립 요구
문화제 '우리들의 initiative EWAH'

2009.

문화제 장애인상이 있었다.

2011.

문화제 기획단 모집
문화제 '한결기'
정기오른세미나 시작

2013.

자치단위 인준
자치단위 문화제 '목적'
정기오른세미나
문화제 '변명'

2004.

첫 문화제 '역을 잡자'
학내 장애인운동추진구역 조사

2006.

자관기에 철자 붙이기 활동
문화제 'Turning Point'
대동제 - 장애인학생 지원네트워킹 연대강터 진행

2008.

자료집 발간
허용훈인 장애인학생지원론 가하. 거기 올라온 장애인학생지원

2010.

자치단위 달회
420 실천단 '들'

2012.

이대 앞 삼권 편의시설지도
문화제 '섬'
정기오른세미나

틀린그림찾기

틀린그림찾기의 2013년

그.리.고. 10월!

대망의 문화제 '변명'

9월

한 학기 동안 쌓아온 우리의
고민을 풀어
문화제 준비를 열심히!

5월

'목적'을 주제로 한
자치단위 문화제에서
'장애인과 섬', '언어 목적'
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모든세미나를 열어
이화인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3월

새내기 모집과 함께
틀린그림찾기의 2013년을
달달하게 대거기 시작!

여름방학

방학동안은

'역사 속 장애인'을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책으로 모양을 딱딱 쌓는

세미나를 진행 했습니다

!D

4월

4.20 장애학생지원론의 날

문화제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문화제 보신각이 아닌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되어서 새로웠습니다!

알고 쓰자, 개념어 사전

장애우

최근에 '장애인'보다 '장애우'라는 표현이 더 친근감 있게 들린다며 쓰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특정 대선 후보는 TV토론회에서 '장애우'라는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된적이 있다.

벗 우(友)는 친구라는 뜻인데 친구(親舊)의 사전적 의미는 아래와 같다.

1. 친하게 사귀는 벗, 풍우, 친우, 친고(親故),
2. (비슷한 또래나 빙포 달갑지 않은) 상대편을 부각하게 또는 낮추어 부르는 말

사전적인 뜻만 봐도 단어의 뒤에 '우'를 붙이는 것은 상대방을 자신의 또래로 칭하거나 낮추어 부르는 것이다. 장애인을 향해 '장애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장애인을 자신보다 낮은 존재로,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또한,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을 비장애인이라고 칭한다. 그렇다면 장애우의 반대 개념을 '비장애우'라고 한다면, 비장애인 모두 '장애를 가지지 않은 친구'가 되는가? 이렇듯 장애우는 예외를 처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비하하는 시선이 담겨있는 표현이므로, 장애인 이라 부르는 것이 옳바르다.

장애를 '앎고' 있다

『자폐증을 앎는 의사 박시온, '굿 닥터'가 던지는 의미』

파이낸셜뉴스 (2013.07.31)

'알다': 1)병에 걸려 고통을 겪다. 2) 마음에 근심이 있어 괴로움을 느끼다.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

'장애를 앎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장애를 병으로 인식을 하고 장애로 인해 당연히 고통을 앎을 것이라 생각하거나, 혹은 장애로 인해 마음에 근심이 있어 괴로움을 느낄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파인 장애인들은 장애를 '앎고' 있는 것일까? 장애는 치료될 수 있는, 그리고 치료되어야 하는 병과 같은 것일까? 장애는 치료해야하는 병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일 뿐이다. 또한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이 장애로 인해 고통 받거나 근심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장애를 '앎고 있다'라는 표현은 장애인을 병을 가진 약자로 만들고, 사회가 보장해야 하는 장애인의 권리를 치료해야 하는 개인적인 문제로 만든다. 따라서 장애를 '앎고 있다' 보다는 '장애가 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 '자폐증'이 아니에요! '자폐 범주성 장애'가 맞습니다!

겉집장애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느 한 쪽을 고르지 못해 괴로워하는 심리를 뜻하는 신조어.

장애(disability)는 본래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단순히 '구분'하는 의미이다. 하지만 겉집장애의 경우 말 하는 사람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본래의 의미와는 다르게 그동안 그 용어가 사용되어오면서 덧붙여진 사회적 의미를 포함하게 된다. 자신이 선택이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망설임하게 하지 못하는 요인을 장애로 칭한다는 것 자체가 '장애'가 행위를 가로막는 문제 요인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는 '장애'가 부정적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므로 '겉집장애'라는 말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2013 장애차별 철폐를 위한 장애판 5대 요구안 알아보기

1. 발달장애인법 제정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 규정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 설치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편의와 서비스 규정

발달장애인의 기본적인 소득 보장

-발달장애는 아동기에 발현된 지적장애/자폐성 장애 등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가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장애 유형을 말한다. 장애계에서는, 학대를 비롯한 각종 노동 착취 및 인권 침해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발달 장애인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2. 수화언어권리 보장

수화언어 및 농문화 지원 법률 제정

정규교육의 교과과정에 수화언어를 제2외국어로 지정

수화와 구화를 배우고, 선택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

수화통역 자격을 갖춘 교사와 통역사 확충

=청각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에는 '수화'와 '구화'가 있다.

청각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언어를 나이가 적은 시기에서부터 배울 수 있어야 하고, 당사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언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언어를 기반으로 당사자에게 교육과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3. 부양의무제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내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이 있으면 그 가족에게 부양의무를 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의 적용은 가족과의 연이 끊긴 독거노인, 장애 자녀를 둔 빈곤층 부모 등 최저 생계비 이하로 살아가는 국민곤층에게 부담을 준다. 복지는 '가족'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에, 복지의 부재를 가족에게 떠넘기는 부양의무제는 문제가 있다.

4. 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보장

필요한 사람에게는 하루 24시간 활동보조 보장

활동보조 본인 부담금 폐지, 무상 제공

바우처제도 폐지, 사회서비스·노동자 기본권 보장

-2007년 중증장애인들이 투쟁을 통해 얻어낸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에게 보조인을 파견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2013년, 여전히 활동보조 서비스는 장애 등급별로 사용가능 시간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며, 1급 중증장애인도 하루 3-4시간으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어있고, 이러한 활동보조인의 이용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강요되고 있다.

5.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개인별 지원 체계를 갖춘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와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이 중심이 된 복지전달체계를 갖춘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권리옹호 기구를 갖춘

장애인 권리보장법의 제정과 시행

-국가가 등급을 매겨 분류하여 복지를 제공하는 유일한 존재 '장애인'. 본디 장애등급제는 1988년부터 일본의 방식을 도입하여 시행된 제도이지만 이제는 일본도 장애인에게 등급을 매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 사용하는 차별의 상징인 '장애등급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장애인은 몸에 고기처럼 등급을 매겨 선별적/일괄적으로 제공되는 복지가 아니라, 개인의 상태와 특성에 맞는 지원을 받아야 한다.



나는 약속 장소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다. 내 옆에는 아까부터 나와 같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어서 눈에 확 띄었다. 난 휠체어를 탄 사람을 바깥에서 본 것이 처음이다. 일부러 시선을 다른 데 두려고 했지만 흥칫 흥칫 쳐다보는 꼴이 되고 말았다. 아, 친구가 역에서 나왔다. 내가 있는 장소를 찾지 못하고 두리번거린다.

저 병신. 병신아! 여기야!!

... 나는 흠칫 놀랐다. 옆에 휠체어를 탄 사람이 있는데 내가 지금 병신이라고-그랬나? 그랬다. 아니 근데 나는 옆에 사람을 보고 병신이라고 한 게 아니잖아. 재가 날 못 찾으니 오라고 부른 건데, 그리고 병신이 나만 쓰는 말도 아니고, 다들 만날 병신 병신 하는데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특별히 기분이 나쁘거나 하진 않았을 거야. 저 사람도 내가 자기한테 병신이라고 한 게 아니란 걸 알 거야! 뻔히 보고 있었는데, 아 그래도 옆에서 병신이라는 소리가 들렸으면 조금 기분이 나쁘긴 했을까... 내가 잘못된 거야? 내 잘못인가? 사과해야 하나?

Chapter 1



JM과 장애인 흉내내기

02

올해 3월, 한창 신입생들이 미팅에 나가며 들떠있을 무렵에 소위 'JM 사건' 이 크게 터져 내가 속해있는 학교가 한바탕 뒤집힌 일이 있었다. JM은 새내기 배웅터나 오프, 미팅 등의 장소에서 큰 소리로 자기소개를 외치는 FM 문화의 아류로 '장애인 흉내를 내면서' 자기소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과의 새내기들이 나간 미팅에서 상대 남학생들이 이 JM을 시킨 일이 JM 사건의 시작이었다. 당시 나는 JM이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생각했다. 사람들 앞에서 장애인 흉내를 내면서 자기소개를 하라고 시키다니, 기본적인 상식을 벗어난 일이었다. 나를 비롯한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고 이는 비난받아야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과 학생회 측에서도 빠르게 대처하여, JM사건은 문제 발언을 한 학생 및 소속 학과에게 사과를 받아내면서 일 단락되었다. 그 이후 모 포털 사이트들의 검색어 순위권을 차지하고, 신문 및 뉴스에 물상식한 행동으로 기사가 나고, SNS에서는 'JM발언을 한 학생을 향한 비난은 마녀사냥이다. 아니다' 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는 등 한동안 화두에 올랐었지만 곧 가라앉았다.

그리고 나는 요새 들어서 JM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고 있다. 그 계기는 현재 인기리에 방영하고 있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인물이 주인공인 드라마이다. 과 선배가 내게 "오늘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 자폐 아동의 흉내를 내면서 웃고 있는 걸 봤는데, 기분이 좋지는 않았다." 라고 했을 때 나는 내 귀를 믿을 수 없었다. JM사건이 학교를 휩쓸고 간 것이 올해 초이다. '어떻게 장애인 흉내를 내라고 할 수 있냐' 며 상대방을 그렇게 꾸짖었는데, 그런 우리 학교에서 사람들이 장애인 흉내를 내고 있던 말인가? 그러자 선배가 이어서 말했다. "사실 그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을 따라한 거긴 한데, 장애인 흉내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불편하더라고." 내가 이어서 말했다. "그 주인공 흉내를 낸 거라고? 그건 당연히 따라할 수도 있지"

... JM은 비난받아야 할 일이고, 사회가 인정하는 선 안에서의 장애인 흉내는, 유희로서 웃어넘길 수 있는 일인가?

'영구 없다' 같은 바보 흉내, 머리에 꽃을 단 미친 여자의 흉내, 굳이 장애인인 아니더라도, 튀는 행동들의 흉내 - 이렇듯 우스꽝스러워 질 수 있는 것의 흉내는 사람을 웃게 한다. 그리고 나 자신조차 상황을 재미있게 만들기 위하여 종종 이런 흉내를 낸다는 것을 인정한다.

JM 사건 당시, 그 학생이 내놓고 '장애인 흉내를 내면서 자기소개를 하자' 라고 말한 대신 말아톤의 초원이, 굿닥터의 시온이, 혹은 영구를 따라하면서 소개하기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

장애인들의 '모자란' 행동을 놀리거나 그것의 흉내를 내면서 웃음거리로 만드는 일을 초·중·고등학교에서 해보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 생각해본다. 그 앞에서 흉내는 내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이상한 일, 혹은 나쁜 일이라고 여겨 지적한 사람이 있는가? 장애인을 비하하는 흉내, 그런 행동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사회에서 그것만을 보고 겪으며 자랐다고 한다면 어떨까. 소위 명문대의 학생이, 남들이 웃고 넘어갈 수준의 장애인 흉내와 그렇지 않은 행동을 구별해내는 그런 영민함과 사회적 관계형성 능력이 부족했다는 것이 이 학생의 잘못인가?

분명 JM은 잘못되었고,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장애인에 대한 모욕 행위로서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JM을 하자고 외친 학생이 '이것은 내가 배운 것이다.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쓰는 학교의 문화였다.' 라고 말할 때 나는 그것을 그가 JM을 선행한 나름의 이유로써 이해하게 되어 버린다. 더군다나 나는 장애인 흉내가 불편하다고 하는 선배의 말에 '그 정도는 당연히 따라할 수도 있지' 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나는 그가 장애인 권을 고려하지 못하는 정말 못되고 나쁜 인간이라고 비판할 자격이 없다. 아쉽게도 JM 사건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어떤가? '너희가 진정한 장애인이다.' 혹은 '너희 머리에 장애가 있다' 등의 -JM과 똑같이 장애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평가들은, 장애인 비하가 문제의 본질이 아님을 증명한다. 많은 이에게 중요한 문제는 그것을 생각 없이, 몰상식하게 '드러나게' 한 것이었다.

그저 조금의 변명을 해본다.

장애인 비하 문화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사회 전체에 퍼져있다. 그렇기 때문에, JM-우리의 눈앞에서 대놓고 이루어지는 장애인에 대한 비하 문화-에 대한 비판이 한 개인의 인간성을 공격하는 일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다.

지금도 장애인 흉내는 계속해서 재생산되어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되풀이된다. 나도 어디서부터가 '잘못된 일' '상식에 어긋난 일' 이고 어디까지는 '용인될 수 있는 일' 이라고 선을 그어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불편한' 장애인 흉내에 대한 비난 이전에, 사회 전체적으로 현재의 장애인 비하 문화에 대해서 고찰하고 이것이 어떤 교묘한 방식으로 장애인을 모욕하고 있는 지 돌아보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이 문화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지가 수면 위에서 이야기되어야 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카리

‘편의시설’이라는 단어를 보면 당신은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가?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 울퉁불퉁 솟아있는 유도블록을, 누군가는 기울어진 경사로를, 또 누군가는 도로에서 마주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편의시설은 과연 누구를 위한 시설일까? 오직 장애인‘만’이 이용해야 하고, 장애인‘만’을 위해 필요한 것일까?

먼저 편의시설의 법적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편의증진법) 제2조 제2항

이 법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단순히 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종류, 설치기준에 대한 규정하는 것과 더불어 이들의 ‘접근권’을 기본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이 이 법의 목적이다. 장애인 등은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 바로 접근권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이 법이 접근권을 국민의 권리로 보장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 즉 편의시설은 취약 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건

물이나 교통시설,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시설과 설비를 의미한다.

이제 편의시설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몇 가지를 정정해보자. 편의시설은 장애인‘전용’이 아닌 장애인‘겸용’이다. 장애인용 화장실이 비어있을 경우에는 비장애인이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편의 시설이 존재한다고 해도, 실제로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거나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게 설치된 편의시설은 편의시설이 아니다. 예를 들어, 건물 앞에 설치된 경사로의 기울기가 너무 급격해서 휠체어 사용자가 불안전하다고 느낄 정도라면 경사로로는 전혀 편의시설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사실 경사로에도 법적 설치기준이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경사로들은 알다시피 다양한 각도들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편의시설은 반드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다. 편의증진법에 따르면 98년 이후 신축된 건물들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이 법적 의무로 되어 있지만, 구 건물의 경우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데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경우나 설치를 위해 건물을 아예 새로 지어야 할 정도로 무리가 있을 경우는 제외된다.

현재 법에 나와 있는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법적 기준은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건축물의 편의시설들을 살펴보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기준만을 맞춰 지키거나, 그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주차구역의 경우(주차구역은 장애인 전용으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전체 주차구역의 대수의 2% 이상 설치되어야 하고, 폭과 깊이가 휠체어가 오르내릴 수 있을 만큼 넓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실제 수치는 폭 3.3m 깊이 5m)

건물의 주 출입구의 경우에도 턱이 없어야 하고, 통로와 주 출입구에 높이 차이가 있을 경우 경사로나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해야 한다. 경사로의 기울기(높이/밑변의 길이)는 12분의 1 이하여야 하며 유효 폭은 1.2m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복도나 통로, 화장실, 부대시설의 경우에도 길이, 폭의 세세한 기준이 존재한다.

엘리베이터는 스위치의 높이에 제한이 있고, 휠체어 사용자용 조작반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조작반과 통화 장치에는 점자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휠체어 사용자가 문이 열렸을 때 다른 승객이 탑승하는지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승강기 내부 후면에는 거울이 부착되어야 한다.

유도블록의 경우에는 눈에 잘 띄는 노란 고무 재질로 된 판 형태만이 표준형이다.



(↑유도블록의 좋지 못한 예)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은 너무나 암담하다. 나몰라라 식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건물이 부지기수이고, 실제로 편의시설을 나름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매우 옹졸한 경우가 다반사다. 있으면 못한 편의시설은 편의시설이 아니고, 이용할 수 없는 편의시설은 편의시설이 아닌 예쁜 쓰레기일 뿐이다.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차별이다. 건물이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접근 단계에서 장벽이 존재한다면 장애인은 마음씨가 선한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며, 혹은 도움을 요청하며 그 자리에 쓸쓸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장애인들을 밖에서 생활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자립 생활을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은 당사자들의 의지가 아니라 그들이 밖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사회의 책임도 분명히 존재한다. 편의시설은 '과도한 친절'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의 보장이다. 자신의 권리를 말하고,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기 전에 장애인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비장애인에게도 존재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13년: 공익광고 속의 장애인

M



이것은 장애인 주차 공간에 주차를 하는 비장애인을 비판하는 광고다. 하지만 밑의 문구는 '당신은 시각 장애인이십니까?'이다. 아무런 생각이 없었을 때는 '당신은 장애인이 아니니 이 공간에 주차를 하면 안 된다'라고 들리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오히려 장애인을 비하하는 문구임을 알 수 있다. 이 광고의 문구는 사실상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인거 안보여? 너 눈이 안보이나?'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제 심장은 정상입니다'

'먼저 한 번 다가와줄 때'

'먼저 손 내밀어 줄 때'

'먼저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줄 때'

'저의 심장은 뜨겁게 뛸 것입니다'

이 광고의 주체는 장애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장애인에게 장애인을 향해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왜 가만히 있는 장애인에게 비장

애인이 손을 건네야 되고 다가와야 하고 말을 건네야 하는가?

장애인을 자신보다 불쌍한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생판 모르는

비장애인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며 '따뜻한 한마디'를 해줄 것인가?



발달장애인 바로 알기: '규칙적인 일을 좋아하고 작은 변화도 금방 파악하며 집중력과 정확성을 필요한 일에 뛰어난 능력을 보인다.'

모든 발달장애인이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고는 '발달장애'라는 것으로 모든 발달장애인을 묶고 복제 인간 취급을 한다. 발달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서 만든 공익광고지만 오히려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취업 장려를 위해서 발달장애인의 '긍정적인 특징'들을 나열한 것이 마치 강아지를 파는 애견샵에서 '우리 강아지는 짖지도 않고 재주를 잘 부려요'라고 하는 것과 같은 뉘앙스를 풍겨 불편함을 준다.

공익광고란 사회공익에 관한 정보나 인식을 확산시키거나 변화시킬 것을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정보나 가치를 전달하는 소통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익광고 속 장애인의 모습들은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거나 장애인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다른 광고속의 비장애인들이 독립적인 존재로 등장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의존적인 장애인상 만을 시청자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공익광고를 내세우지만 사실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다음 공익광고들의 문제점을 생각해보자

1)



“당신이 채워야 할 자리입니다”

장애라는 이름은 단순한 이름표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신체의 다름보다
우리의 편견과 시선 때문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격체란 것을 깨닫고
당신의 사랑으로 그 자리를 채워주세요.
당신의 자리가 채워질 때
우리는 함께 더 큰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애라는 이름은 단순한 이름표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신체의 다름보다
우리의 편견과 시선 때문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격체란 것을 깨닫고
당신의 사랑으로 그 자리를 채워주세요.
당신의 자리가 채워질 때
우리는 함께 더 큰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2)



당신에겐 손이 있습니다.
당신 마음에 친절도 있습니다.

계단의 길이만큼
당신의 손은 아름답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당신에겐 손이 있습니다.
당신 마음에 친절도 있습니다.
계단의 길이만큼 당신의 손은 아름답습니다.

-병신의 정의 : 네이버 국어사전-

병신3病身[발음 : 병: 신]

말사

1. 신체의 어느 부분이 온전하지 못한 기형이거나

그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 또는 그런 사람.

>그 애는 태어날 때부터 병신이었어.

>교통사고로 다리가 병신이 되었다.

>구서가 죽었던지, 최소한도 병신만 됐더라도 그는 여란이의 앞길을
몸에 쥐고 떠밀어가 그의 발 밑에 자존심을 치던지교!

출처 : 박완서, 미망

2. 모자라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주로 남을 욕할 때에 쓴다.

>그런 것도 못하면 병신이다.

>안 할 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병신 소리를 듣고 살지.

출처 : 한수산, 유민

3. 어느 부분을 갖추지 못한 물건.

>장갑은 한 짝을 잃어버리면 병신이 되고 만다.

불편한 마음을 안은 채로, 나는 집에 돌아가서 병신의 사전적 정의를 검색했다. 병신의 정의 1)을 발견하고 나는 환호성을 질렀다. '내가 잘못된 게 아니야!' 병신의 정의 1)에 따르면, 우리가 신체의 일부분이 손상된 사람을 병신이라고 하는 것은 욕설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은 올바른 사용이다.

다만 정의 2)를 읽으면서 내 마음은 원래대로 돌아왔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병신의 의미는 정의 2)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신체의 일부분이 손상된 사람을 병신이라고 부르더라도 청자의 입장에서는 이미 2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리고 이건 물론 기분 나쁜 일이다.

또한 실제로 정의 1)에 맞는 '병신'을 부를 때조차, 신체의 일부분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이상한, 해괴한, 이라는 비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신체의 일부분이 손상되어 있는 사실 자체가 온전한 신체를 가진 이들로부터 비하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어조의 차이도 존재한다. 아무리 병신이 국어사전의 정의 1)에 맥락에 따른 사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보통 높고 강한 목소리로, 상대를 비난하는 상황에서, 병신아! 라고 이야기한다. 정중하게 병신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

많은 생각이 든다. 장애인이 병신이라는 말을 듣고 불편해하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 병신이 가진 정의 1) 신체의 손상의 의미가 흐려진다면 '병신'은 더 이상 장애인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게 된다. 혹은 병신이 가진 정의 2) 모자라게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분리시켜 떼어내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다. 아니면 정말 병신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을까?

Chapter 2



장애와 예술

M

시각장애인 사진전, 6월3일까지 세종문화회관서 개최

뉴스고민 2015-05-29 14:00 | 기사입력 2015-05-29 14:00

도 F C + - 44

시각장애인

강원주 석단공회

박지환 일락

고영목 한자발자

배윤기 배인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AN INIC가 주최하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후원하는 사진전 'Sight Unseen. 보이지 않는 이들의 시각'이 세종문화회관 1층 전시관에서 6월 3일까지 개최된다고 2일 밝혔다.

많은 비장애인들은 시각장애인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지 않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진전에서는 시각장애인이야말로 가장 무렵하고 열렬한 시야로 사진을 촬영한다는 발상의 전환을 전하고 있다.

이 사진전은 11번의 세계 순회전을 통해 TIME 매거진, BBC방송국, HBO 다큐멘터리 등에서 극찬을 받았다. W

'예술' 통한 장애인식개선, '경기도의회로 찾아가는 전시회' 개최

전세문 기자 2015-05-29 14:00

전세문 기자 2015-05-29 14:00

전세문 기자 2015-05-29 14:00



오늘날 장애에 대한 관심이 예술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는 '정상성'의 관념이 강하게 지배해 온 것에 대한 역반응이다. 정상적인 것에 대한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비정상적으로 인식되던 것들에까지 관심의 폭이 넓혀졌다. 그 동안 배제되어 왔던 장애인의 생존권, 이동권, 교육권과 더불어 문화에 접근할 권리의 문제가 대두되며 예술 창작자로서의 장애인의 역할이 조명될 받게 된 것이다.

그럼 장애와 예술의 만남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사회는 주체들의 관계망에 의해 형성되며 그 과정에서 기여하지 못하거나 배제된 개인과 집단은 그 안에서 자신들의 지위와 역할을 찾기 어렵다. 비장애인들에 의해 형성된 세계 속에서 장애인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역할을 찾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이 세계와 관계를 맺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여태 기존의 관념과 질서의 관계망 속에서 억눌려 왔던 장애인의 목소리가 얼마든지 새로운 예술을 탄생하게 하는 원천이 될 수 있고 장애와 예술의 만남은 지금의 세계 속에 또 다른 관계망을 이미지화하고 표상하여 드러내는 중요한 작업이다.

역사 속 장애인의 예술 활동은 아웃사이드 아트(outsider art)라고 불리어왔다. 하지만 장애인을 사회의 경계선 밖에 두는 풍조 속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 '아웃사이드'라고 부르는 경우 차별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쪽(Insider)의 시점에서 저쪽(Outsider) 시점의 예술을 평가한다는 구조 자체가 이상하다며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래서 그 대신 오늘날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예술 활동에 에이블 아트(able art), 또는 보더리스 아트(borderless art)라는 명칭을 붙인다. 에이블아트는 '가능성의 예술' 또는 '장애의 예술'이라는 뜻이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 무능력한, 불가능한(disable) 존재가 아니라 예술을 통해서 그들만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able)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용어이다.

여기서 에이블아트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입체파, 야수파, 추상파 등은 작품 속 기법의 공통성을 묶어서 만들어진 용어들이다. 하지만 에이블아트는 작품 외의 창작자의 특성 중 하나인 '장애'라는 것을 묶어서 범주화시키는 용어이다. 생각해보라. 키 작은 사람들의 예술 작품을 모아 '스몰아트'라며 용어를 만들어내지는 않지 않는가. '에이블아트'는 그 의미 자체로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다른 존재들로 인식하고 특이한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용어이다.

장애인의 예술 활동은 장애인 - 비장애인간의 소통의 의미를 가장 크게 담는다. 뉴스 기사나 장애인 전시회 소개글을 보면 '비장애인과 장애인 차별 없는 만남의 장 열려...'나 '비장애인과 서로간의 문화예술을 통한 마음의 공유를 가질 수 있는 만남의 장'과 같은 문장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만큼 장애인의 예술 활동은 소통을 위한 도구로 쓰인다. 하지만 장애와 예술의 만남은 이렇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의식적인 동정과 비하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예를 들어보자. 이번년도 5월 3일부터 6월 3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시각장애인 사진전이 'Sight Unseen'이라는 이름으로 열렸다. 'Sight Unseen'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각장애인들의 작품 순회전으로 이미 11번의 세계 순회전을 걸쳐 아시아 최초로 12번째 순회전을 실시하였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사진전은 시각장애인 사진작가들이야말로 가장 꾸밈없고 명확한 시야로 사진을 촬영한다는 발상의 전환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벽을 허문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진전의 작가들은 다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이 만들어낸 작품을 묶어서 전시회를 한다는 것이 바로 '범주화'를 하는 것이다. '범주화'(categorization)의 사전적인 의미는 2) 개념이나 사물들을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 공통적인 속성이나 기능 등을 중심으로 분류하여 집단화하는 과정, 개념이나 사물을 구별하여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략이다. 이 상황에는 장애인들과 소통을 한다는 명목 하에 오히려 '장애인'이라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 장애인들의 예술 작품을 모아놓고 전시회를 여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장애인을 범주화시키는 것은 소통을 한다면서 장애인들을 더욱 더 비장애인과 분리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위의 예는 마치 '장애인'이라는 것을 주제로 잡고 전시회를 하니 구경을 오라고 하는 것 같다.

- 1) 시각장애인 사진전 '보이지 않는 이들의 시각' 열려. 웰페어뉴스, 2013/5/02.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7777>>
- 2) 범주화,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2009/11/30, 국립특수교육원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91004&cid=2885&categoryId=2885>>

그에 반해 미술 작품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을 알리는 다른 전시회를 살펴보자. 이 전시회는 '차별'이라는 같은 주제 아래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기성 작가들과 작가 지망생들이 모여서 구성한 전시회이다. 장애인이 받는 사회적 차별의 심각성과 이로 인한 좌절감을 시각적 매체로 표현해 관람자들에게 차별의 의미와 함께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식 고양을 위해 만들어졌다. 전의 예와는 다르게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공동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서로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은 물론 장애라는 브랜드가 아닌 순수한 작가 개인의 역량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한다. 장애를 내세우게 해서 관객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시회의 주제를 확고히 해서 그 주제에 관심을 갖는 관객들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관람자들은 장애인의 작품을 보고 '우와 장애인이 그랬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의미를 인식하고 정서적인 교감을 이루게 된다. 진정한 소통과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국 내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간단하다. 장애인의 예술 활동을 격려한다는 명목 하에 장애를 '브랜드화' 시키지 말자. 더 깊이 들어가서 소통과 인식개선을 위해 전시회를 연다는 명목 하에 장애인을 범주화시켜 동정하거나 '나'와 다른 존재로 차별하지 말고 진정한 소통을 하자.

장애에 대한 편견은 어떻게 재생산되는가?

: 교과서 속의 장애인

카리

틀린그림찾기 활동을 하면서 장애의 정의나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특수교육 등의 문제를 논의하면서 계속 마음 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가 있다. 바로 '장애에 대한 편견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지속되는가?'였다.

학교를 다니면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주제에 대해 팀 프로젝트를 하거나 보고서를 쓸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결론 중 하나가 바로 '인식 개선'이다. 나는 항상 의문이 들었다. 도대체 인식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이 문제에 대한 '일반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인식은 무엇인가? 마치 사회가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구조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처럼, 사람들의 인식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편견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아닐까?

장애인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나 태도는 장애 문제의 패러다임 형성과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이 완전히 통합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 요소 중 하나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함께하려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다. 즉, 장애인도 비장애인이 도와주고 불쌍하게 바라보아야 할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인식 개선'의 출발인 것이다. 따라서 사회 전반에 자리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있어왔지만, 아직도 우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굳건히 서 있는 편견들에 마주치곤 한다.

그렇다면 본래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장애에 대한 편견은 어떻게 재생산되는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은 소수자에게 행해지는 차별을 당연히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소수자를 바라보는 관점은 생득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에 근거하는 문제이다. 개인의 가치관은 어떠한 요소들에서 영향을 받는가?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지역 사회에서, 또는 대중매체를 통해 기성세대가 부여하는 가치들을 습득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자신도 모르게 사용하는 용어나 생각의 과정에서 잘 드러나기 마련이다. '여성스럽다'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는 긴 머리에 하늘하늘한 옷차림을 한 여성이, '외국인 노동자'를 떠올리면 까무잡잡한 피부에 어눌한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을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또한 '장애우'라는 용어에 대해 생각해보자. 우리는 언제부터 '장애우'라는 용어를 '장애인'이라는 용어 대신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게 되었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사람들은 성장하면서 마주치는 다양한 환경(부모, 친구, 이웃, 타인이 사용하는 언어나 각종 매체, 읽을거리 등)에서 영향을 받지만, 개인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마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학교'일 것이다. 아동기나 청소년기의 대한민국 학생들은 하루의 절반 이상을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

기 마련이다. 친구들과의 관계나 교사의 가르침만큼이나 친숙한 것이 '교과서'이고 이는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과 동시에 찜찜함(?)을 안겨준다. 어렸을 때보다는 나를 아는 것이 많아졌다고 생각하는 지금에서야 신문 기사나 미디어를 마주할 때 '장애를 앓고 있다니, 저건 잘못된 표현 아닌가?' '장애를 극복한 장애인이라고? 왜 저런 표현을 당연한 것처럼 사용하지?' '선택장애라니, 선택을 잘 못하면 장애인이야?' 라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나지만, 초등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마치 도덕 교과서에 쓰인 말들을 경전처럼 따르려 하지 않았던가. 통행은 좌측으로, 여성은 남성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야 하고, 장애인은 나의 친구이며, 할머니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고!

사람들을 자신도 모르게 야금야금 편견에 물들게 하는 경로는 앞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다양하지만, 이번에는 '교과서'와 '교육'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보도록 하자.

교과서는 우리에게 $A=B$ (예컨대 장애인=도와줘야 함.)라는 식으로 지식을 전달한다. 그리고 그 지식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는 말을 쓴 채 우리에게 주입된다. 그 시대의 지배적인 가치, 특히, 과거 고정관념으로 굳어진 장애나 인종, 가족상황 등에 대한 내용이나 서술을 학생들이 비판적 시각 없이 그대로 학습할 경우 학령기 아동은 물론, 학령기 이후 성인이 되어서까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 타인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을 쉽게 용인하거나 인권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갖게 할 우려가 있다. 교과서에서 인권이 중요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³⁾

3) 정영찬(2012). 교과서 안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정관념. 인권 친화적 교과서 모색을 위한 워크숍. 21p

보통 사람에게는 너무도 쉬운 일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이들을 위한 격려 편지를 적어 보자.



점자를 읽는 시각 장애인의 손 계단 앞에서 움직일 수 없는 휠체어
(고등학교 「도덕」 <Ⅱ.사회 정의와 윤리: 1. 사회 제도와 정의 - 소수자, 사회적 약자와 인간의 기본권 문제> (천재교육, 75쪽))

위 사례는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문제를 이야기하는 단원에 수록되어 있지만, 내용은 사회의 정의와 아주 거리가 멀다. 점자를 읽는 것과 계단 앞에서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왜 격려 편지를 받아야 하는 일인가? 이걸 마치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사회의 책임이 아니라, 그저 장애인이 혼자 해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이는 장애인이 겪는 문제를 결국 개인적인 차원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또한 비장애인을 '보통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에서부터 이미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뚜렷하게 구분하며 대동하지 않은 관계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생명의 수호 천사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몇 해 전부터 한국인 의사들이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곳에도 보건 진료소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인 의사들이 진료 봉사를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여러 마을에서 환자들이 몰려와 2,3일 동안에 1천여 명의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한 정신지체아를 치료하던 의사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리 예뻐 치료해도 2년이나 3년 안에 죽을 겁니다. 나의 노력이 의미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의 생명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해 치료합니다."

그 의사의 헌신적인 치료 때문인지, 숨도 잘 못 쉬던 그 아이는 얼마 후 스스로 숨을 쉬고 눈도 깜빡이게 되었습니다.

(6학년 도덕, 27-8쪽)

이 사례는 의사를 '수호천사'로, 장애아동을 '수혜자'로 표현하고 있다. 한국인 의사들이 사례 속의 정신지체아만 치료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교과서에서 치료 대상자를 '정신지체아'로 꼬집어 언급한 것은 '장애인=불쌍함=봉사의 대상자'라는 공식을 활용하여 봉사활동의 의미를 극대화하려는 의도였음이 느껴진다. 게다가 마지막 부분은 '의사의 헌신적인 치료'라는 말로 기적(miracle!)의 느낌까지 주면서 시혜자(의사)-수혜자(장애인)의 공식을 완성한다.

지금까지 '교과서 속의 장애인'을 뼈뺀 시선으로 해석해 보았다. 교과서를 비롯한 읽을거리를 통해 가랑비에 옷 젖듯 형성된 인권 의식과 차별에 대한 인식은 단순히 한 개인의 차원을 넘어 자신과 관계를 맺는 타인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때로는 언어 사용으로, 때로는 행동으로 말이다. 사회가 요구하는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은 이렇게 학습되어 무너뜨릴 수 없고 굳건한 벽을 쌓아가는 것이다.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차별을 받는 것은, 차별을 행하는 한 개인의 사고가 편협한가의 문제를 넘어선 편견을 재생산하는 구조가 공고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교과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간행물, 다큐멘터리, 드라마, 영화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우리를 아금아금 쪼먹는 편견에 대항하기 위하여, 한 번쯤은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것들에 '뼈뺀 시선'을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



나는 병신이라는 말을 쓰지 않기로 했다.

의도했건 의도치 않았건.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에는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비하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 번 실수했다고 깨닫고 나니, 병신이라는 말을 쓰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결국 이 말을 굳이 써가면서 설명해야 할 말은 없다고 판단했다.

여전히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병신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우리는 서로를 병신이라 부르고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나는 병신을 쓰지 않기로 한 순간부터, 친구들의 입에서 병신 소리를 들을 때마다 불편함을 느낀다. 그들에게 잠깐이라도 병신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나는 그들보다 더 장애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똑똑해서, 병신이라는 쓰지 않기로 결정한 건가? 아니다. 또한 그 사람들도 병신이라는 말의 의미를 그 사람들이 몰라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입에서도 병신이라는 말은 무의식중에 튀어나온다. 게다가 이미 일상어가 되어버린 병신을 쓰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나 혼자 작난 척 까칠한 척은 다 하는 요상한 사람이 되는 기분이다.

일단 나와야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애기들을 만날 기회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Chapter 3



비장애인에 대한 폭력

네모

장애인이 당신을 때렸다. 당신은 신고하겠는가, 무시하고 뒤돌아가겠는가? 무시하고 뒤돌아 갈 경우 짜증을 낼 것인가, '장애인이니까...'하고 이해할 것인가? 대다수는 두 질문 모두에 후자를 택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은 장애인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배려를 받아 마땅하고 비장애인들이 그들을 신경 써야한다고 말한다. 물론 장애인이 개개인이 가진 장애로 인한 문제에 배려를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하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 예컨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늦어지는 버스 탑승이라든지 시각 장애나 청각 장애로 인한 필기의 어려움 등은 비장애인들이 당연히 이해하고 배려해야 할 사안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장애인에게 해당 장애로 인한 문제만을 배려하고 있을까? 오히려 그들에게 과도한 친절을 베풀려고 혹은 과도한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노력을 하며 자신이 상처받고 있지는 않은가? 장애인을 대하는 비장애인들의 그러한 태도가 오히려 그들에게 상처가 되진 않을까?

장애인을 대할 때 비장애인이 오히려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물리적 폭력보다도, "저 사람은 장애인이잖아. 네가 참아." 하는 주위의 시선과 상대가 장애인이라는 것에서 느껴지는 개인적인 양심의 가책이 개인에게는 오히려 더 큰 폭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컨대 지적 장애인이 당신의 신체 부위를 만져서 당신이 화를 낸 경우를 생각해보자. 생판 모르는 누군가가 자신의 몸에 손을 대는 데 기분이 좋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화를 내고 보니 만진 사람이 지적 장애인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당신은 오히려 미안해하거나 '장애인이니까, 뭐...'하고 자신의 불쾌함을 그냥 지나치려 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장애인에게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냐' 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그런 경우에도

불쾌감을 느낀 사람은 분명 당신인데 피해자는 지적 장애인으로 보이게 되고 당신은 그로 인해 더욱 기분이 나빠질 것이다. 그러나 비장애인이 굳이 이렇게까지 상처받을 필요가 있을까? 이미 언급했듯이 장애로 인해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들은 비장애인들에게도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이 맞다. 비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해 발생한' 어려움에 있어서 장애인들을 고려해야 하고 배려해야 한다. 그러나 그 외의 사안들, 다시 말해 장애로 인한 문제가 아닌 경우엔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을 대하는 것과 같이 대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지체 장애인이 아무 이유 없이 보폭한 연필심으로 찌르는 행위는 비장애인이 제지하고 막아야 하는 일이지, 참고 넘어갈 필요까지는 없다는 말이다. 비장애인이 동일한 행동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 상황에서 그저 가만히 참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닌가? 장애는 그 사람의 하나의 상태이지, 그것으로 인해 그의 모든 행동에 면죄부를 주는 권리는 아니다. 한 사람의 잘못은 한 '사람'의 잘못으로 받아들여져야지 '장애인'의 잘못으로 받아들여질 필요까지는 없다는 말이다. 오히려 그러한 과도한 배려와 이해로 상처받는 장애인도 많다. 과도한 친절과 이해는 혼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며 언제나 배려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장애인이 가하는 폭력을 마주할 때, 대부분의 비장애인은 참거나 장애인인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이 행위가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시선 때문이 아닐까? 당신은 장애인을 바라볼 때 무조건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 언제? 보통은 그들이 자신보다 약해 보일 때. 우리는 장애인을 배려한다. 의식하건 아니건 그들을 '힘들게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으로 인해 폭력을 당한 경우에(직접적 폭력과 주위·개인의 시선으로 인한 간접적 폭력 모두 포함) 그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역시 장애인을 바라볼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장애는 하나의 특성으로 판단이 되어야지, 질병 취급을 받아선 안 된다. 장애인들은 알 그대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지, 아프고 치료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장애를 가진 사람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며 그에 맞는 의무와 권리도 행한다는 것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너의 수화가 들려

수화언어권리 이야기

화면에게

보낸 사람 : 수하 <sooha@ewha.ac.kr> 주소록 추가 | 수신자단하기

받는 사람 : 화면 <lhy123@ewha.ac.kr>

며칠 전 네가 다녀간 후에 이따금씩 네 생각을 해. 작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로 바쁜 너를 불러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정말 가고 싶은 세미나에 속기 지원이 안 된다고 하지 뭐니. 세미나를 포기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네 생각이 나서 연락을 했는데 흔쾌히 가준다고 해서 고마워. 학교 다닐 때도 매학기 수업마다 네 도움을 받았었는데 졸업 후에도 너한테 이렇게 신세를 졌네. 나름 많은 속기 지원을 받아봤지만 네가 제일 속기를 잘 해주는 것 같아. 너는 내가요? 하고 물을지 모르지만 정말 넌 봉사자들 사이에서만 아니라 웬만한 속기사보다 더 잘해.

어제부터 비가 내리네.

가장 날씨가 좋았던 4월 20일인데 이번엔 웬일로 비가 내리네. 그래서 어제 광화문에 나갔다가 물에 빠진 생쥐가 돼서 집에 돌아왔지 뭐니. 그렇지만 이 비는 정말 좋은 비일 거야. 봄비잖아. 막 나온 싹들이 이 비를 마시고 예쁜 꽃을 피우겠지.

갑자기 네게 메일을 쓰는 건 내가 널 만나고 나서 며칠 동안 혼자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어서야.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에 대한 얘기가. 그런데 어제 420 집회에 가서 사람들이 나눠주는 5대 요구안 종이를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

'수화언어권 보장? 수화를 못하는 나 같은 돌연변이 청각장애인은?'

이번에 장애인권 운동하는 사람들이 5대 요구안 중 하나로 '수화언어권 보장'을 들었어. 말 그대로 수화를 언어로 보장하라는 거지. 작년에 '도가니'가 한창 이슈였잖아. 그걸 계기로 청각장애인 학습권에 대해 사람들이 고민하게 됐고, 청각장애인의 학습권이 침해당한 가장 큰 이유가 수화가 무시당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아. 그래서 수화를 하나의 언어로 인정하라는 거지. 생각해보면 나도 내 주변의 다른 청각장애인 친구들도 다 구화를 사용해.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하도 수화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구화를 배워야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구화를 사용해야 하는구나 했지. 다른 사람들이 수화를 배워야 한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어. 그렇게 생각해보면 '수화언어권' 보장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

화연아

그런데 내가 궁금한 건 나같이 수화를 못하는 청각장애인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할 거냐는 거야. 수화언어권은 사실 수화를 할 수 있는 청각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잖아. 물론 수화언어권 보장은 정말 중요해. 하지만 구화를 사용하는 나 같은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다시 수화를 배워야만 할까?

이번에 장애인권영화제 개막식도 그래. 거기 가서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니? 같이 간 다른 친구한테 정말 부끄러워서 죽는 줄 알았어. 같이 간 친구도 수화를 모르는 청각장애인 친구였는데 한 번도 장애인권영화제를 안 가봤다고 해서 같이 갔는데 어쩔 속기를 그렇게 할 수가 있니. 그건 정말 속기도 아니었어. 사회자가 하는 말 다 자르고 나오는 사람 이름만 적지 뭐니. 만약에 네가 나와서 말을 하

면 네가 하는 말을 적는 게 아니라 '이화연' 이렇게만 쓰고 자기들끼리 놀더라. 앞에서 하는 말을 다 적어주는 것까진 바라지도 않았어. 그건 정말 힘들다는 거 아니까. 그렇지만 이건 아니지 않니? 앞에 수화통역사 분은 정말 열심히 해주시는데 속기 해주시는 분은 정말 내가 장애인권영화제를 온 게 맞나 싶었다니까.

사실 이런 일이 비밀비재하잖아. 며칠 전 네가 와서 속기를 해준 것도 사실은 당연히 세미나를 주최하는 측에서 속기 지원을 해줘야 하는 거잖아. 너 같은 고급인력이 일당으로 커피 한 잔을 받으며 속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미나를 주최하는 측에서 준비할 때부터 속기와 수화통역을 같이 준비해야 하는 게 맞지 않니?

이런 얘기를 하다보면 끝이 없겠다. 오랜만에 메일 보내면서 너무 우울한 얘기만 한 것 같다. 취업 준비 힘들 텐데 끼니 거르지 말고 감기 조심하고 건강히 지내. 다음에 또 보자. 안녕!

면위로▲

▲ ☒
▼ ☒

○○카드
이화연

체크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자기스개서 제발 최종.hwp

● Re: 화연에게

보낸 사람 : ● 화연 (lhy123@ewha.ac.kr) 주소록 추가 | 수신자단하기

받는 사람 : ● 수하 (sooha@ewha.ac.kr)

수하야

이제야 답 메일을 쓰네

오늘은 아침부터 산책을 다녀왔어. 햇살도 좋고 바람결도 부드러더라. 아침인데도 아기를 데리고 나온 어머니들이 많았어. 산책길에서 만난 아기가 웅얼이를 하는데 뜻은 알아들을 수 없지만 저절로 눈 꼬리, 입 꼬리가 다 올라가더라. 아기가 예뻐 보이면 결혼할 시기라던데 얼른 결혼할 사람을 찾아봐야 하나.

네 메일을 보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어. 사실 '수화언어권'도 네 메일 읽고 처음 알았거든. 나도 네 말을 안 들었으면 정말 아무 문제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부끄럽지만 나도 널 만나기 전까지 청각장애인은 모두 수화로 대화를 하는 줄 알았거든. 지금은 수화 말고 구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도 많은 걸 알지만.

그리고 보니 저번에 전시회에서 수화 도슨트를 봤어. 청각장애인 두 분이 수화 도슨트의 설명을 보면서 전시회를 관람하고 계시더라고. 그 당시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로 전시회 설명을 해주는 도슨트'라네. 대단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한계가 많은 거였네. 너처럼 수화를 할 수 없는 청각장애인은 어떻게 도슨트의 설명을 이해하지? 도슨트들은 이 작품에서 저 작품으로 옮겨가면서 얘기를 해서 입모양을 보기도 어렵잖아. 전시회 가기 전에 미리 그 작품들에 대해 다 공부를 해서 가야 하나?

이런 얘기를 하면 작품을 꼭 도슨트 설명을 들으면서 감상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려나? 나 같은 경우에도 도슨트의 설명을 잘 듣지 않고 혼자 조용히 작품들을 감상하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그건 내 선택이잖아. 도슨트 설명을 들을지 말지를 선택하는 것과 어쩔 수 없어서 선택권 없이 혼자 작품을 감상하는 건 많이 다르잖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분이 나쁘네. 물론 전시회에서 수화 도슨트를 채용한 건 정말 잘한 일이지만 조금 더 많은 고려를 했어야 했어.

한 때 청각장애인들은 모두 수화를 사용할 줄 안다고 생각했던 내가 말하긴 부끄럽긴 하지만 정말 사람들이 청각장애인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 장애인권 운동하는 사람들도 수화언어권 보장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 모두의 인권도 생각해야 할 텐데. 앞으로 하나씩 해결되어가겠지? 난 곧 사람들이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당연히 생각하고 고려할 거라고 믿어.

이제 난 다시 자소서를 쓰러 가야겠어. 메일이지만 오랜만에 너랑 얘기해서 좋았어.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 나중에 좋은 세미나나 이런 얘깃거리가 있으면 또 연락해. 너랑 만나고 얘기하는 건 언제나 환영이야. 다음에 또 연락할게. 너도 감기 조심하고 건강히 지내. 안녕!

면위로▲

▲ ✉

금★용

원-하-는-모-든-조-건-가-능

▼ ✉

한국장학재단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안내

잠시만요

우리 벋들 상식 알고 가실게요~

• 청각장애인 의사소통방법

청각장애인은 구화, 즉 말을 가장 많이 사용.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약 85.8%에서 구화를 사용하고 있었고, 독화 입모양은 4.1%, 수화는 5.6%, 몸짓은 3.3%, 필답은 11%를 사용.

약 90%의 청각장애인 의사소통방법이 구화와 독화를 언어로 사용
(에이블뉴스 '전체 청각장애인 위한 단체 설립 지원해야' 2010.05.03. 에이블뉴스 박운선)

• 구화

농아의 의사소통 방법 중 하나.

상대의 말을 그 입술의 움직임과 얼굴 표정을 보고 이해하며, 청각통로를 통하여 습득한 음성언어로 발어하는 방법

•• 독화

말하는 사람의 입모양을 보고 음성언어의 자극을 받아들여 시각으로 언어를 읽는 방법

- 벋신과 욱 -

벋신이란 말,
이제 안 쓰려고

그래 씨발,
잘 생각했어



오늘 친구를 만나서 내 작은 결심을 이야기했다.

‘병신이란 말, 이제 안쓰려고’

친구의 대답은 긍정적이었다. 잘 생각했다고 했다.

음, 차라리 그냥 친구가 내게

‘아주 그냥 앞으로 욕을 안 하겠다고 하시지’ 라고

말하는 게 나았을 것이다.

병신을 쓰지 않기로 한 나는 씨발을 들었다.

씨발은 무엇을 비하하는 욕이던가.

‘욕’에 대해서 말하자면 말도 끝도 없다.

욕설을 쓰는 것은 좋지 않다. 남을 비하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하지만 욕을 아예 쓰지 않는 것이 가능하긴 한가?

욕을 쓰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이?

나는 많고 많은 욕 중에 ‘병신’을 선택해버렸다.

내가 집어내고 싶은 것은 너무나 쉽게 대중에게 노출되고 범람하는
매체들 사이에서 XX처리조차 되지 않는 병신이다. 병신은 이제 욕
도 아니다! 음악에서, 웹툰에서, 영화에서, 소설에서, 심지어 신문기
사에서 병신은 하나의 단어로써 통과된다. 병신의 난무다.

이 현상은 병신의 정의(1)을 희미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더 이상 장애인은 병신이라는 말에 신경 쓰
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병신 이 말 한마디
로 상처받고 모욕당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나는 왜 병신이라는
말을 쓰지 않기로 한 ‘이유’를 끊임없이 찾고 있을까.

... 그리하여 병신이야기

한 ‘진보’ 신문의 기자가 ‘노숙자’를 비하한 ‘성소수자’의 발언을 지
적하는 의도로 트위터에 [병신...]이라는 트윗을 올렸다. 이를 본 장애인 운동
가가 기자에게 ‘병신’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욕설이며, 해당 발언에 대해 사
과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기자는 ‘병신’은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
용하는 욕일 뿐이며, 나는 ‘병신’을 절대 장애인을 비하하려는 의도로 쓰지
않았다. 왜 나에게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매도하느냐, 사과를 요구한다. 라고
답했다.

자신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장애 인권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병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까? 그것은 진보적인 성
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가? 왜 활동가는 저 기자에게만 책
임을 물었을까?

그는 소위 소수자 인권에 대해 높은 감수성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
는 ‘진보 신문’의 기자였고, 여러 운동 현장을 다니면서 취재할 일도 많았
기 때문에, 그의 타임라인을 지켜보는 팔로워에는 실제로 ‘장애인’인 활동
가가 많았다. 그것을 간과한 채 병신이라는 말을 모두가 보는 SNS에 올리
고 ‘비하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단순한 변명일 뿐이잖
아. 라고 생각한 것이 병신에 대한 다양한 생각의 출발점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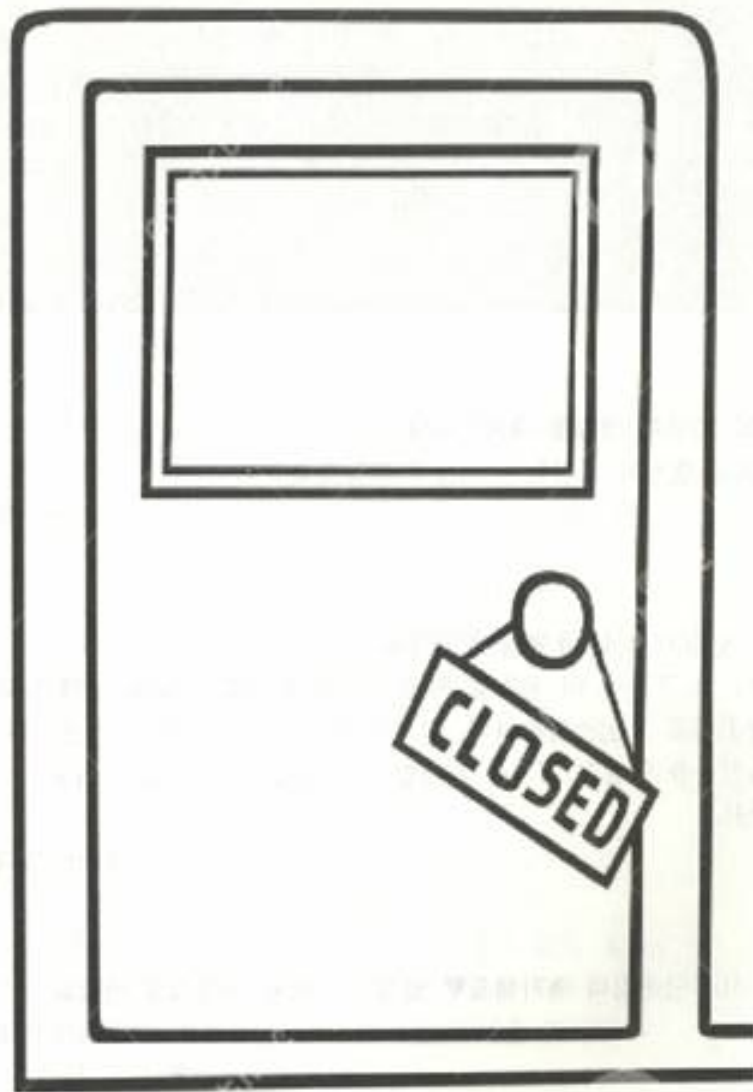
병신의 의도/ 병신의 정의/ 병신과 나/ 병신과 욕/ 이 네 가지 이야기는 결
국, ‘틀린그림찾기’의 일원으로써 장애 인권에 대해 높은 감수성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1인이 병신을 쓰라고 하는 상황과 쓰지 말라고 하는
상황들을 마주하고 늘어놓는 변명이다. 그리고 기왕이면 이 문집을 읽고 계신
분들도 같이... 병신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이자 바람이다.

M의 못 다한 이야기

앞선 글 중 하나인 '장애와 예술'에서 언급하고 싶었던 것이 장애인을 범주화하는 것의 문제점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었다. 하지만 이 내용까지 포함하면 글이 복잡해져서 쓸 수가 없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따로 메이지를 만들어져서 쓸 수 있게 되었다. 내가 하고 싶은 또 다른 이야기는 바로 '장애인의 예술 활동을 보는 비장애인들의 자세'에 대해서였다.

우리나라에는 에이블아트센터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장애인 문화 권리 실현 및 문화예술교육과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세워진 국내 최초의 전문장애인문화예술 공간이며, 장애인들이 표현활동을 통해 살아가는 존엄을 획득하는 동시에 이 사회에 새로운 예술관과 가치관을 세우고자 하는 대안 예술공동체이다. 에이블아트센터는 장애, 예술, 영상의 조화와 진화를 진지하게 모색하며 장애, 비장애 관계없이 누구나 참사람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를 지향한다 (장애, 비장애 관계없이 라고 하지만 사실상 관계있다는 것을 전 글에서 언급했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에이블아트는 영화 속 주연과 조연들 간의 대화함 같이 보인다. 장애인의 전시회는 당연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위한 소통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방법이라도 그 전시회를 어떤 마음으로 경험하느냐에 따라 소통이 될 수도 있고 비하가 될 수도 있다. 이번 9월에 열린 고경 전을 가서 나는 고경전의 작품들을 보고 분노를 느꼈다. (왜 분노를 느꼈는지는 굳이 쓰지 않겠다)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 것도 일종의 소통이다. 하지만 장애인의 그림을 보고 '우와 장애인이 그린 그림이네?' 또는 '손 없이도 잘 그렸다. 나였으면 못 했을텐데.'라며 감동을 받으며 비교하는 것은 나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불쌍한 사람을 보고 비교하는 것임으로 장애인 비하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것은 소통이 아니다. 결국 인식 개선과 소통을 위해 장애인들의 그림을 전시하는 것이 사실상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더욱 더 부추기고 무의식적인 동정과 비하를 내포한다. 생각해 보자. 당신은 장애인이 그린 그림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는가?



2013 툴링그림찾기 문화제: 번영

틀린 그림 찾기 10주년 경.축.메.시.지

틀찾의 10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고민하는 모습 기대할게요

From.툼

틀린그림찾기가 십 주년을 맞았네요.
우연히 그 즈음에 이 공간을 지난 것뿐인데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
어 부끄럽고 조심스럽습니다. 앞으로 틀린그림찾기가 더 많은 고민
과 실천들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파이팅!

From.알라

우와 10주년이라니 축하해요♥ 앞으로도 꼭꼭 이어가길 바라요.

From.마일

제가 떡볶이를 사간 게 어저께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다니...
10주년 축하해요. 조만간 또 들고 갈게요

From.초코

틀린그림찾기의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틀찾과 여위를 비롯한 자단위들은,
묻혀있는 이야기를 발굴해내고 드러내야 한다는 과제와
늘 씨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어려움을 멋지게 찬찬히 짚어 나가며
이렇게 10주년을 맞이한 틀찾, 정말 멋집니다.
해마다 다루는 주제의 외연이 넓어지고,
동시에 치열해지는 것을 보며
여위도 많은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여위+틀찾, 함께 활동할 그 순간을 언제나 고대하고 있습니다.
든든한 동료 틀찾을 언제나 응원해요~

From. 자치단위 여성위원회

장애인 인권을 위해 활동하시는 틀린그림찾기가 있어
같은 이화인으로, 같은 자치단위소속 으로서 존경스럽습니다.
항상 응원 할게요~ 10주년 축하드립니다^^

From. 자치단위 생활도서관

틀찾과 마찬가지로 소수자 인권을 말하는 입장에서,
무엇이 '틀린 그림'이며, 그걸 어떻게 찾아내고,
무엇으로 바꾸어 갈지를 고민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항상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 치열한 고민을 이어온 지금까지의 10
년처럼, 뜨겁게 거듭될 틀찾의 또다른 10년을 기대합니다.
늘 응원합니다!♥

From. 자치단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목 기

(들쭉 새내기들의 빛나는 혼자 한 상 차지 전격의 후기)

네 모

제게 있어 이번 문화제는 지난 일 년 간의 툰그림찾기 활

동을 정리하는 것 같아요. 지난 일 년 동안 혼자였다면 하지 못했을 것들에 대해 생각을 했고 함께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 문화제는 제게 그러한 생각들을 그저 생각으로 두는 게 아니라 머릿에서 끄집어내는 작업이었어요. 다시 생각을 정리해보고 고민하고 돌아보며 제가 가졌던 고정관념들을 깨고 새로운 조각들로 머릿속을 채우게 되었어요.

일 년 동안 툰그림찾기 활동을 통해 느낀 것은, 이 사회의 툰그림들이 너무 고요해서 평소엔 차마 그것들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찾고 나서 보면 이전 정말 툰진 건데 왜 그렇게 무디게 살았던 건지 실더라구요. 여전히 제가 찾지 못한 여러 조각들이 남아 있겠죠. 생각했던 것들, 고민했던 것들을 수면 위로 띄우는 이 문화제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부족하지만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더더 함께 생각해보아요!

*일 년 간 함께 활동을 한 민트, 카리, 니, 치르, 웨바 모두 정말 고마워요. 함께 활동을 해서 더 좋았어요. 부족한 저를 이렇게 끌어올려 주시고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툰그림찾기 짱이에요!

니은

올 한 해는 정말 정신없고 바쁜 해였던 것 같아요.

나를 졸업을 앞둔 고학번이란 핑계로 툰그림찾기에 크게 신경을 못 썼네요. 으아. 올해 문화제가 제 대학생활의 마지막 문화제인데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저도 후기 쓰면서 알았으니깐... 빠지지 않을 게요. 무튼 이번엔 신경을 많이 못 써서 미안하고, 너무너무 잘 해줘서 고마워요

*) 우리 툰찾인들 사랑해요ㅋㅋㅋㅋㅋㅋㅋㅋ

민트

이번 문화제는 글을 쓰면서 정말 즐거웠어요.

작년에는 새내기로서의 저의 이야기를 썼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은 생각이 들어간 글을 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작년의 저와 지금의 저를 비교해보니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으면서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기도 하네요. 작년에는 글만 달랑 쓰고 '언니들이 잘해주겠지' 라며 참여할 생각도 못 했는데 이번에는 글을 다 쓰고 편집에도 살짝 (아주 살짝) 발을 담가 보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무척이나 재밌네요. (아주 살짝 담가서 그런 것 같지만... ㅎㅎ) 1년 동안 모두들 고생했어요. 이번 문화제가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벌써 다음 문화제가 기대되네요. 다음에는 조금 더 친절하게 글을 쓰도록 노력할게요. 툰그림찾기 사랑해요♡

아 참! 툰그림찾기 10주년 축하합니다!!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해요 (초코님 사랑해요) 파티해요 파티!!!

차르

처음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덕분에 많이 힘들었지만 그만큼 재미도 있었어요. 그리고 참 내 새끼들 잘 키웠다는 생각이 무럭무럭 드는 문집입니다. 니은도 카리도 짱짱걸이에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감사... ㅍㅍㅍ

카리

후기 비트 다들 받았습니다.

만감이 교차합니다.

세상에나 만상에나 또 1년이 지나고 두 번의 방학이 지나고 다시 문화제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2013년은 다사다난했네요. 개인적으로도 그럽고, 자치단위연합회와 함께하면서 여러 가지 신경써야 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한다고 했는데 잘 하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요.

그렇지만 틀린그림찾기와 톨찰 사람들은 언제나 저에게 많은 힘이 되었고, 절 지켜봐주고 부들부들 해주었습니다. 항상 죄를 짓는건 저예요...후후 다들 너무 사랑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학생문화관, 427호 문을 열면 마음이 안정되는 기분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본명보다 '카리'라는 활동명에 더욱 애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뭔가 예년보다 생각은 많이 했는데 같이 나누지 못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둘도 없는 여화동동 내 동기 츠리와 톨찰여신 민트, 귀요미 네모, 만만하지않지만어쨌든그런선배인 니은과 함께여서 잘 살아갈 수 있었어요. 벌써 학교에 입학해서 새 번째를 맞이하는 문화제인데, 갈수록 저만 빼고 다 성장하는 것 같아서...잠시 눈물 좀 닦고....

생각에 갇히지 않고 조금의 실천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름을 톨림으로 만들어내는 구조에 저항하고 책바위를 도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지금의 마음을 간직하며 매일을 살아갈게요.

문집을 읽어주신 이화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행복하세요:D

장애인권을 고민하는 틀린그림찾기 신입 모집

동동동~ 지금부터 내가 신입 모집한다 동~



자 격 : 1년 이상 가능한 이대생이면 누구나

모임시간: 매주 금요일 늦은 6시 30분

장 소 : 학생문화관 427호

문 의 : 010-4541-9323 (민트)